

한국타이어(주)

복지재단, 2003년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실시

한국타이어복지재단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2003년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50개 시설에는 아동 및 장애인 교육을 위한 교육기자재, 노인 및 장애인 치료를 위한 의료기자재,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등이 지원됐다. 또 한국타이어복지재단은 11월 중에 가정봉사원 파견으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단체에게 세탁서비스용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한국타이어 중국공장 ISO/TS16949 인증 획득

한국 타이어 중국 상해본부와 가흥공장이 자동차 메이커의 통합 품질경영시스템인 ISO/TS 16949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있었던 심사를 통해 인증기관인 B.S.I(영국표준협회)로부터 획득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ISO/TS 16949는 최근 발행된 국가별·업체별 품질 체계를 통합하여 만든 시스템으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품질 체계이다.

한국 타이어는 세계적인 메이저 OE 메이커가 모두 인증하는 명실상부한 자동차 관련 통합 품질경영시스템인 ISO/TS 16949 인증을 획득한 것이며,

이번 인증의 대상 OEM은 포드, 폭스바겐, 피아트, 마쯔다, 현대, 기아 등이 포함되었다. 지난 5월 본사에서 획득한 이어 이번 중국 상해본부와 가흥공장이 인증 획득한 것으로, 가흥공장은 현재 미국 BIG3사의 QS-9000, 독일의 VDA6.1, 프랑스의 EAQF, 이탈리아의 AVSQ, 중국의 CCC, 한국의 KS 등의 인증을 이

획득한 바 있다.

무역의 날 맞아 수출 6억불탑 수상

한국 타이어가 수출 6억불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제40회 무역의 날을 맞아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 제40회 무역의 날을 맞아 수상한 수출 6억불탑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1995년 11월 5억불탑 수상 이후 8년만에 달성한 것이며 업계 최초로 6억불탑을 수상한 것이었다. 또 이 날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위상을 높이며 한국 타이어 고성능 타이어의 매출신장에 공헌한 최진욱 HANAM법인장은 산업자원부 철담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국타이어, 미국 SEMA Show 참가

지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미국에서 있었던 SEMA Show(Specialty Equipment Market Association)에 한국 타이어가 참여했다. 지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SEMA Show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무역 전시회로서는 참가 업체 및 관람객수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대의 행사로 1,600여 업체가 전시업체로 참여, 8,000개의 부스에 90,000여 제품들을 전시했다. 한국 타이어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미쉐린, 브리지스톤 등 세계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회사의 기술력 등을 과시했다. 특히 올해 한국 기업 최초로 포드사의 공급사로 선정된 한국 타이어는 전시 부스에 포드 F-150을 전시해 한국 타이어의 기술과 품질을 자랑했으며 한국타이어 이미지걸들의 사인회 등 여러 행사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국타이어, 업계 최초 수출 연간 7억불 달성

한국 타이어가 12월 23일 국내 타이어 산업 역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억불을

달성하는 신기원을 이룩했다. 1962년 국내 최초로 태국과 파키스탄 등 동남아 지역에 처음 타이어를 수출한 이래 41년 만에 국내 타이어 업계최초로 통관 기준 연간 해외 수출 7억불(FOB 기준)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의 선적을 기준으로 하여 2002년 실적 대비 17%가 늘어난 것이다(중국부문 수출 제외). 이에 지난 12월 23일 본사에서는 조충환 사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7억불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수출 7억불은 타이어 수량 2,000만 개로 펼쳐 놓으면 12,000km에 달하는 길이로 서울에서 부산(왕복 850km)을 14번을 왕복하고도 남는 수치이다. 한국 타이어는 지난 62년 국내 최초로 해외로 제품을 첫 수출 이래로 매년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기록해 왔으며 특히 2002년 6억불 탑을 수상한 지 1년만에 수출 7억불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해 수출 주도 산업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포드 이코노라인에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가 미국 포드 자동차에 대규 모로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했다. 포드 자동차의 대표적 밴 차량인 Econoline E-350에 연간 38만개의 타이어를 5년간 공급키로 한 것으로 제품은 한국타이어 대표적 밴용 제품인 RH03의 245/75R 16 규격이다. 납품은 한국타이어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직접 수출방식으로 하게 되며 수출 금액은 교체용 타이어까지 포함해 5년간 총 9천만 달러에 이른다. 포드 이코노라인은 1961년 처음 생산돼 연간 100만 대 이상 팔리는 미국 내 대중적 밴 차량으로 포드자동차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이다. 이번 공급으로 한국타이어가 올해 포드자동차에 공급하게 되는 총 물량은 연간 178만 개(2003년까지 140만 개)로 증가하게 됐으며 연 4천3백만 달러의 수출규모가 된다. 납품에 따른 품질규정이 까다로운 포드자동차에 타이어를 공급할 수 있는 타이어 메이커는 전세계적으로 현재 한국타이어, 미쉐린, 굿이어, 콘티넨탈, 페렐리 등 5개사 뿐이다.

금호타이어(주)

금호 이란 지진참사에
\$ 100,000 상당의 타이어 기증

금호타이어는 최근 지진 참사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이란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 100,000 상당의 타이어 3,290개를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오세철 사장은 15일 오전, 주한 이란대사관을 방문, 모자파리 (mozaffari) 대사를 만나 기증서를 전달하고, "이번 지진 참사를 겪은 이란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란 국민들이 지진참사의 악몽을 하루빨리 떨쳐버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밝혔다.

이번에 제공한 타이어는 이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승용차 타이어와 일부 쥘차용 타이어 등으로, 금호타이어 광양 물류센터에서 타이어 전량을 선적하여 2월중으로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그 동안 금호타이어는 현지 협력사와 판매상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참사로 피해를 입은 이란 국민들을 위해 감사와 격려차원에서 타이어를 기증하게 되었다"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이란의 승용차용 타이어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중동 지역 타이어 수출시장에서 금호타이어에게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금호타이어, 평택에 최첨단 자동생산(APU) 공장 준공

금호타이어가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

서 6번째인 최첨단 자동생산시스템(APU : Automated Production Unit)을 갖춘 공장을 준공. 품질과 기술력면에서 선진 타이어 메이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일류 제품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12월 18일(목)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 APU공장에서 金七斗 산업자원부 차관, 金勝廣 군인공제회 이사장, 朴晟容 금호그룹 명예회장, 朴三求 금호그룹 회장, 黃寅性 前총리, 李承潤 前부총리, 辛亨寅 금호타이어 사장 등 대내외 초청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금호타이어가 2010년대 세계 빅5 타이어 메이커 진입을 목표로 경기도 평택시 포승국가산업단지내 부지에 건설한 평택 APU공장은 자동화시스템 개발 및 공장건설에 따라 일일 약 6,000본(개), 연간 200만본 생산규모로 제조공정 자동화와 축소에 따라 품질 및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타이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평택공장에 도입된 APU는 현재 미쉐린, 브릿지스톤, 굿이어, 콘티넨탈, 피렐리 등 세계 타이어업계 상위권의 5개 업체만이 개발, 운용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지난 89년부터 자동화 시스템 연구개발에 돌입, 10년 9개월만인 1999년 9월에 기존 선진 업체의 자동화 생산 시스템보다 품질 및 생산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APU 개발을 완료. 그후 2년 4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공장을 준공하게 되었다.

특히 금호에서 독자 개발한 APU시스템은 정련, 압연, 압출, 제단, 비드, 성형, 가류, 검사 등 기존 9개로 독립된 타이어 제조공정을 자동 온라인화

(Continuous Process)하여 하나의 Unit에서 생산하는 소형 플랜트 개념의 혁신적인 타이어 자동화 생산 시스템으로서 제조라인 길이가 기존 1.2Km에서 800m로 줄어들었고,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며 일부 수작업에 의존할 수 없던 부분들을 자동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금호의 타이어 제조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런 제조공정의 축소와 자동화는 품질 및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져 우선 품질면에서 평택 APU공장은 CIM (Computer Intergrated Manufacturing) 및 각종 측정장치에 의한 자동제어방식 등을 적용한 자동화 설비를 갖추 품질 균일성 합격률이 기존공장보다 20~46%정도 높아지고 통계적 품질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품질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이렇듯 금호의 APU공장은 연산 200만본 정도의 소규모로도 품질이나 생산성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공장 설립이 그만큼 용이하며 자동차 메이커 인근에 설치할 경우 물류비 감소, 납기 단축이 가능하고 높은 생산 유연성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신속한 맞춤 생산도 할 수 있는 등 자동차 산업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호타이어는 이런 APU 공장의 특성을 살려 국내 카메이커 인근에 지속적으로 공장 증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기후나 도로여건이 다른 세계 시장을 각 권역별로 구분, 이들 각 지역에 APU공장을 가동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해 나가는 등 세계 타이어산업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 2010년대에 세계 빅5 타이어 제조업체로 진입할 계획이다.

넥센타이어(주)

2004년도 시무식

한 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이 2004년 1월 2일 넥센타이어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날의 시무식에는 강병중 회장과 이규상 부회장이 참석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임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다시 한 번 밝아온 새해를 맞아 임직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4년간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2004년을 넥센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3년도 종무식

2003년도를 마감하는 종무식이 12월 30일 넥센타이어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상욱 전무는 종무식사를 통해 2003년 한 해동안 수고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2004년 넥센의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모두에게 당부하였다.

장애우고용 대책위원회 회의

지난 12월 3일 '2003년도 하반기 장애우 고용대책위원회'가 넥센타이어 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부산일보 김상훈 고용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우 고용과 직업 재활을 위하여 장애우 고용촉진공단 및 지역사회가 연계를 강화하여 중증 장애우의 일자리 확보와 장애우들을 안정된 직업생활 정착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으며 토

론에 앞서 넥센타이어 현장을 방문하여 넥센타이어에서 근무하는 장애우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양산대학 & 넥센타이어(주) - 산학협동 협약체결식

지난 11월 4일 양산대학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양산대학과 넥센타이어(주)의 산학협동 협약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양산대학 조병선 학장, 교수진들을 비롯해 넥센타이어 관리담당 이상욱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동 협약체결식이 이뤄짐으로써 향후 양산대학과 넥센타이어간에 기술 정보의 교류, 기술인력 양성 및 상호간 협력관계 강화를 통하여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훈련실시

지난 10월 10일 '2003년도 특수장소 합동소방훈련'이 넥센타이어(주) 본사 공장에서 실시되었다. 이날은 양산소방서 방화 과장을 비롯한 넥센타이어 직장자위 소방대원들과 양산소방서 대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 대비 훈련과 응급처치에 대한 훈련을 하였다. 또한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양산소방서 소방원들과 본사 직장자위 소방대원들이 함께 화재진압 훈련도 시행하였다. 이날 행사를 통하여 넥센타이어는 재난 발생시 안전한 대비책과 화재진압 요령습득으로 불의의 재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인천지점 OPEN

지난 12월 18일 인천지점 이전 개업식이 있었다. 2002년 1월 1일 지점 승격

이후, 남구 주안8동으로 터를 옮겨 이전함으로써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잡은 것이다. 이번 개업식에 정달석 전무와 송건태 이사를 비롯해 각 지점장과 출장소장, 대리점 사장 등 수 많은 축하객이 참석해 인천지점의 발전을 기원해 주었다. 사무실 32평, 창고 230평 등 전체 294평으로 OPEN한 인천지점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해 본다.

충주출장소 개소

2003년 12월 5일 정달석 전무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 금능동 소재의 신축 건물로 이전한 충주출장소가 OPEN 하였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간판으로 넥센타이어의 이미지를 깊게 각인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20평 창고에서 140평의 창고를 보유하게 되어 원활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체력 측정 실시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사의 도움으로 넥센타이어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력측정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이번 체력특정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체력상황을 알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체력측정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체력측정 결과를 통해 체력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